

## 사목 공지

### 축 환 영

- 예비자 입교식: 2월 23일(주일) 10:30am 미사 중
- 환영식: 10:30am 미사 후, 가브리엘 방

#### 주임 신부님(김동규 미카엘) 이임 및 송별미사

- 이임미사: 2월 9일(주일) 9:00am, 10:30am 미사 중
- 송별미사: 2월 13일(목) 9:00am 봉헌 (9:30am 미사 없음)
- 성당출발: 9:30am / Qantas 국내선 10:10am 공항대합실)

#### 새 신부님 부임(임기선 요셉, 노호영 미카엘, 이남웅스테파노)

- 부임: 2월 14일(금) 아시아나 항공 8:20am 도착  
성당에 10:00am 도착 예정
- 환영식: 2월 16일(주일) 매 미사 중

#### 수녀님 송별 및 새 수녀님 부임

- 장 메리노 수녀님: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중  
- 2월 17일(월) 아시아나 항공 10:10am 출발
- 이 첼레스티나 수녀님: 2월 23일(주일) 10:30am 미사 중  
- 2월 24일(월) 아시아나 항공 10:10am 출발

- 새 수녀님 부임 : 2월 21(금) 아시아나 항공 8:20am 도착  
- 새 수녀님(좌순선인노첸시아, 최연숙디아나, 윤경남바오로)

## 사목 공지

병자 영성체: 2월 12일(수) 10:00am

#### 첫 영성체 교리반 모집 및 부모님 교육

- 시작: 2월 15일(토) 1:30pm
- 접수: 2월 8일(토)까지, 사무실

#### 혼인 교리강좌 (년2회)

- 일시: 2월 16일(주일) 12:30pm-6:00pm, 가브리엘 방
- 대상: 2월-8월까지 혼인을 준비하는 결혼 예정자

#### 유아 세례식: 2월 22일(토) 2:00 pm

- 부모님 면담: 2월 19일(수) 7:30pm 미사 후
- 유아세례식 당일 30분 전까지 성당 도착 요망

상호존중 캠페인으로 하는 미사 중 평화의 인사는 이번 주까지만 나눕니다.

사회복지 특별헌금: 2월 9일(주일)



##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주보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SYDNEY

주보 성인: 한국 순교성인과 성 스타니슬라오

발행일: 2014년 02월 09일

주 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http://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사 무 실: 8756 3333(대표번호) 8756 3334  
8756 3335(FAX)  
사 제 관: 8756 3330(주임신부), 8756 3331(제1보좌신부)  
8756 3332(제2보좌신부), 9558 3498(고해신부)  
수 녀 원: 8756 3336  
주임신부: 김동규 미카엘 사목회장: 정영수 사도요한

평 일	토요일	주 일
월: 7:30pm 화: 7:00am 수: 7:30pm 목: 9:30am 7:30pm 금: 9:30am	9:30am(신심미사) (첫째주, 둘째주) 4:00pm(초등부) 5:30pm(중고등부) 7:30pm(청년부)	7:00am 9:00am <b>10:30am(교중)</b> 5:00pm(City) 5:30pm(영어) 7:30pm

## 연중 제 5 주일

제1독서: 이사 58,7-10

◎ 알렐루야.

화답송: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복음 : 마태 5,13-16

제2독서: 1코린 2,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전례성가: 입당: 56 / 봉헌: 54, 211 / 성체: 174, 164 / 파견: 421

화 답 송:



## 일반 공지

꾸리아 평의회: 2월 15일(토) 7:30pm 미사 후

각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수동, 자동)를 기증 받습니다.

#### 플레이그룹 봉사자 모집

- 매주 수요일 10:00 am-12:30pm, 문의: 0417 177 101

#### 차량봉사자 모집

- 주일 9:00am, 10:30am 미사를 위해 차량봉사하실분 모집 (리드, 캄, 캄시, 이스트우스)
- 문의: 0414 488 700

#### 청년성서 창세기, 탈출기 그룹원 모집

- 오리엔테이션: 3월 1일(토) 청년미사 후
- 접수: 2월 8일(토)-2월 22일(토)
- 문의: 0433 998 728

#### 단체모임

- 쌍두스 성가대: 2월 9일(주일) 9:00am 미사 후
- 전례해설단: 2월 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요셉회: 2월 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연령회: 2월 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ME 조장회의: 2월 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울뜨레아: 2월 9일(주일) 송별식 후 성당

## 금주 성경 읽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로마 1-5	로마 6-9	로마 10-13	로마 14-16	코린1 1-4	코린1 5-8	코린1 9-11
묵상말씀: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 12.9)						

오늘의 중식 메뉴: 교중미사후 음식제공(9시중식없음)

## 2014' 상호존중 캠페인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감사헌금	기 타	이월금	수 입	지 출	잔 액
\$ 15,799.50	\$ 380.00	\$ 11,218.10	\$ 71,344.71	\$ 27,397.60	\$ 26,027.98	\$ 72,714.33

## 감사,기도, 전출입

감사:

전입교우: 최정임 함뚜르다

## 주일 봉사

날짜	9,16/2	23/2,2/3	9,16/3	23,30/3
지구	10지구	11지구	12지구	01지구
전례, 커피, 청소 9:00am, 10:30am 미사 중				

주님봉헌축일 미사 참례수: 1,825 명

## 평일미사(독서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영성체송
10일(월)	열왕 8,1-7.9-13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마르 6,53-56	보라, 신랑이 오신다. 주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라.
11일(화)	1열왕 8,22-23.27-30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마르 7,1-13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12일(수)	1열왕 10,1-10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	마르 7,14-23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13일(목)	1열왕 11,4-13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마르 7,24-30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14일(금)	1열왕 11,29-32; 12,19	나는 주님, 너의 하느님이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마르 7,31-37	제자들은 떠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표징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네.
15일(토)	1열왕 12,26-32; 13,33-34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마르 8,1-10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 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생활 속의 복음

“연중 제 5 주일 - 사랑을 위한 소모품”

깊은 산이나 망망대해에서 별빛은 생명의 길을 인도 해줍니다. 도시의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 때문에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빛은 하느님의 빛이고 네온 사인 불빛은 인간 욕망의 불빛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길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느님의 빛이 간절합니다. 온갖 화려한 음식들이 각기 제맛을 자랑하고 있는 산해진미의 식탁에선 한 줌 소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달고 맵고 신 것 모두를 포기하더라도 짠 것을 포기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 몸에 염분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소금으로 생존하고, 빛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써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은 자기가 없어져야 비로소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빛을 내려면 제 몸이 타 없어져야 하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스스로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없어지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것이 없어지지 않은 착한 행실이란 말뿐인 거짓이며, 희생 없는 공치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착한 행실을 하려면 우리의 시간과 돈이 없어지고, 마음은 상처 입을지 모르며, 이름도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

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이사 58, 7-8)

우리 인생은 어느 때까지는 모으는 과정이겠지 만, 그 이후는 없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가지는(Take) 인생이 주는(Give, 寄附) 인생으로, 이기는 인생이 지는 인생으로, 내 능력에 바탕을 두었던 인생이 하느님 능력이 발휘되도록 나를 치우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진정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인생, 하느님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고생하여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은 후 그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면 그것을 녹여 짠맛을 내고, 그것을 태워 빛을 내야 합니다. 창고에 넣어둔 소금과 함지 속에 넣어 둔 등불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위해 내 것을 녹이고 내 이름을 태워 없앨 때, 하느님 사랑의 맛이 나고, 사랑의 하느님 이름이 빛납니다.

우리의 생명, 시간, 삶은 모두 사랑을 위한 소모품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소모품입니다. 오래 보존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내에 잘 써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내 마음을 다 녹이고 내 몸을 완전히 연소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기 위해 죽으면, 죽을 때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찬근신부

명동대성당 주임

예비자 교리			버스 운행 시간표		
8월반	주 일	10:10am (전 스테파노 신부님 )		리드کم 역 ⇨ 성당	성당 ⇨ 리드کم역
9월반	토요일	5:00pm (주임 신부님)	토	오후 3시 10분	오후 6시 40분
2월반		추후공지	주 일	오전 8시 20분, 8시 45분 오전 9시 50분, 10시 15분	오전 9시 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함께 기도합시다

권영해 베네딕토  
김금선 마리아  
김영복 세실리아  
김연심 프란체스카  
김지현 프란체스카  
김중훈 돈보스코  
김태균  
김태영

김환영 마르타  
김명훈 베드로  
고일순  
노수진 베로니카  
박인희 베로니카  
석송 베드로  
신병각 가브리엘  
신순임 헤리나

안경수 필립보  
여수레 마리아  
이래고 안젤라  
이성준 안드레아  
이애자 오틀리아  
이억석 바오로  
이영민  
이은정 오틀리아

이용수  
이종윤 라우렌시오  
이혜영 프란체스카  
유기현  
윤창현 마태오  
임순자 마리아  
임혜정  
은동현 유스티노

장수호 레오  
장춘자  
전인혜 줄리아  
정명화  
정 바실리오  
정영희 쟼마  
정현옥  
정현주 까리파스

조규정 이레네오  
최춘자 안나  
한 폴  
황선용 크리스티나  
최성규 요한

- 기도지향을 기재하여 봉헌함에 꼭 넣어 주세요. -  
(이름과 세례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주에 새로 기재합니다.)

【사도신경 해설 51】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교리 순서상 교회에 관한 교리 다음에는 성사에 관한 부분이 곧 따른다. 그런데 신경에는 성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성사 대신 ‘죄의 용서’에 관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사에 대한 고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성사가 죄를 사해주는 자비의 성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마르 2,7)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제기한 의문이다. 죄의 용서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만큼 극히 힘든 일이며, 신적인 행위라 할 정도로 대단히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용서로 전능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이라는 기도 첫 마디도 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인 죄 사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2,10)고 단언하시며 치유하셨다. 중병에 걸려 오래 누워있던 환자에게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그는 “일어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용서를 통해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용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이다. 불가시적 사건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가시적 중풍병자 치유를 이용하셨다. 가시적 육신 치유를 통해 불가시적 영혼 치유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이것이 곧 ‘성사의 방식’이다. 성사는 가시적 방편들(말씀, 몸짓, 재료)을 통해 불가시적 은총과 자비의 선물을 드러내고 전해주는 ‘거룩한 일’이다. ‘성사’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으로써 거룩하게 해준다.’는 뜻이다. 성사를 다른 말로 ‘유효한 표징’이라 한다. ‘표징’이란 보이지 않는 실재와 관련되어 그 실재를 가리키고 나타내주는 감각적 수단

또는 도구 곧 ‘볼 수 있는 표지’이다. 예컨대 반지는 불가시적 부부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고, 국기는 국가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 표징은 언어다. 말이나 문자는 보이지 않는 생각, 뜻, 의견, 마음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매체이다. ‘유효한 표징’이란 불가시적 실재를 가리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시적 실재(은총)를 전달하는 ‘효과적’ 표징을 말한다. 성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불가시적 은총, 사랑, 생명을 드러내고 실제로 전하는 도구로서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는 표징이다.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성사다. 그분의 말씀과 행적,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계시해주는 유효한 표징이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요한 14,9)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므로 그분을 보는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듣고 본 것, 손으로 만져 본 것, 그 생명이 나타났다.” (1요한 1,1) 그분은 하느님 자비의 성사 자체이다. 그 자비를 드러내고 베풀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특히 죄인들과 어울리셨다. 죄인들 틈에서 세례받고, 연약한 인간처럼 유혹을 겪고 죄인으로 지탄받는 이들과 먹으며 사귀셨고, 죄인 취급당해 재판받고 죄인처럼 사형 당하셨다. ‘죄인의 벗’으로 처신한 예수님의 삶, 말씀과 행적이 모두 자비의 성사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습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결과 그분은 무자비하게 처형 당하셨다.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 또는 구체적 행동이나 분명한 말씀을 통해 성사들의 기초를 놓으셨고, 교회는 그 것을 바탕으로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과 성품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칠성사 모두가 어떤 처지에서든 자비로 이 용서해주는 하느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의 순간들이다.

[2009년 5월 24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가톨릭마산 8면]

연령회 문의: 0427 995 488		버스 봉사자		차량 문의 : 0414 488 700	
2호차 (리드کم) - 토요일 봉사		1호차 (캄시)	2호차 (캄시)	3호차 (이스트우드)	4호차(리드کم)
03:10pm 리드کم, 06:40pm 성당 출발		주일 - 09:30 캄시 출발	주일 - 09:30 캄시 출발	주일 - 09:30 출발	주일
02월08일: 임준홍 베드로, 김예환 스테파노 02월15일: 하춘성 루카, 이승준 에드윈 02월22일: 최중문 아오스탕, 김예환 스테파노 03월01일: 장기영 토마스, 이정근 사도요한 03월08일: 임준홍 베드로, 김예환 스테파노		02월09일: 고영식 파스칼 02월16일: 정선주 마르코 02월23일: 양재봉 다니엘 03월02일: 03월09일: 고영식 파스칼	02월09일: 유시환 베드로 02월16일: 신영대 요셉 02월23일: 김영권베네딕토 03월02일: 최상현 베드로 03월09일: 유시환 베드로	02월09일: 최홍래실베스텔 02월16일: 김진태 앤드류 02월23일: 최홍래실베스텔 03월02일: 최영수 율리오 03월09일: 최홍래실베스텔	02월09일: 양명숙 모니카 02월16일: 최 안젤라 02월23일: 서용호 마태오 03월02일: 문석주 필립보 03월09일: 양명숙 모니카